

골프엔 ‘박세리 키드’ 미술계엔 ‘광주비엔날레 키드’



김성우 작

"What do we call she is"

비엔날레 통해 성장 20~40대 작가들

다양한 장르로 국내외 무대에서 두각

국내외 무대에 도전장을 내던졌다.

특히 이들 ‘비엔날레 키드’는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접해, 회화 중심이었던 남도 미술에서 벗어나 미디어, 영상 등 장르의 다양화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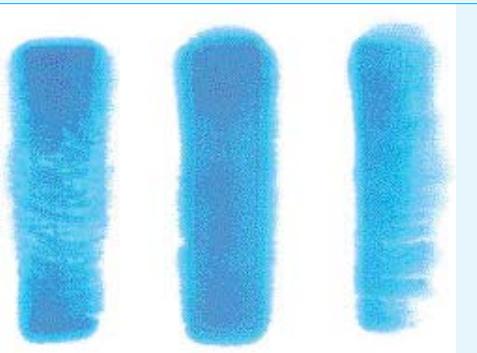
지난달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블루닷 아시아’(20~25일까지)는 이들 ‘광주비엔날레 키드’들의 독무대였다. ‘블루닷 아시아’는 중앙회단으로부터 “광주 작가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제7회 광주비엔날레 대인시장 프로젝트 참여했던 최윤정씨가 총괄 큐레이터를 맡아 사실상 모든 기획을 총지휘했다. 또 20여 명의 지역작가들이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과씨가 톡톡 뛰는 작품을 선보였다. 또 이 섹션에서는 박상희(40·목포대 미술학과·영상), 장호현(28·조선대 미술대학·판화미디어), 김윤정(34·목포대 미술학과·영상), 신호운(36·제7회 비엔날레 대인시장 프로젝트 작가)씨 등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아트페어와 비엔날레의 결합 형태인 이번 전시에서 3~4점의 작품을 판매하는 실적도 올렸다.

최윤정씨는 “대부분 미술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로 광주 작가들을 평가했다”면서 “이들의 작품성이 중앙무대에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인 전시에 넣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이외에도 손봉채(3차례 광주비엔날레 참여), 이이남(2007 디자인



강운 작 '순수형태-일획'



양문기 작 '럭셔리 스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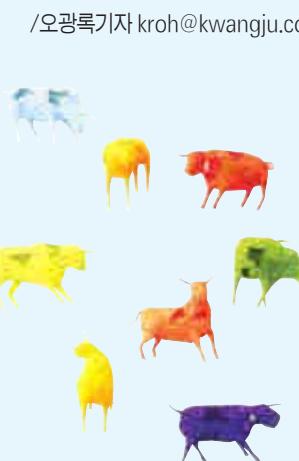
박수만 작
'Falling down'

기성작가를 소개한 섹션인 ‘커튼콜-자취를 발견하다’전에는 강운, 이정록, 정운학, 양문기, 윤남용, 전강우씨 등이 중요작가로 소개됐다. 강운은 제3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이고, 윤남용은 제7회 참여작가이다.

또 전국의 대안공간들이 참여한 ‘작은 나라, 갑작스런 밀도의 아름다움’ 전에는 지난해 대인시장에 문을 연 매개공간 미나리의 김성우(28·전남대 미술대학·조소), 김현돈(41·조선대 미술대학·조소), 이승일(32·조선대 미술대학), 황지영(37·광주대 사진학

비엔날레 참여)씨는 이미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다. 또 제7회 대회 참여작가였던 남화연씨도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009 에르메스 미술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등 맹활약 중이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 대인시장 프로젝트 박상현 큐레이터는 “최근 지역의 젊은 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의 영향으로 회화, 조각 뿐 아니라 사진,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에서 광주미술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비엔날레 이후 마련된 대인시장 작업실에서 지역 작가들이 서로 도리를 하다 보니 기법에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실험적으로 변했다”고 평했다.

정운학 작
'Associated Painting-cow'

예향 남도 대표작가 작품 한자리에

금호갤러리 8월까지

‘나의 살던 고향은’ 전

예향 남도의 대표작가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21일~8월31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나의 살던 고향은’ 전.

이번 전시에는 강봉규, 강연균, 김행신, 문장호, 박행보, 우제길, 이돈흥, 황영성씨가 참여해 회화, 사진, 서예, 조각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이름다운 남도 풍광을 서정적인 흑백 앵글에 담아내고 있는 사진작가 강봉규씨는 낡은 시골집을 여과 없이 활용한 ‘멈추지 않는 시간’을 선보인다. 지역작가로는 드물게 세계 화단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중진 서양화가 황영성(조선대 명예교수)씨는 ‘가족 이야기’를 출품했다. 사람, 꽃, 동물 등의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가족 이야기’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가족상을 제시한다.



경연군 작 '모린'

이룬 작품이다.

이 밖에 광주 조각계를 대표해온 김행신(전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씨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가족’을 전시한다. 문의 062-360-843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을 사랑해’ 등
을 들려준다.

또 일본 극단
'시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팝페라 테너 박완이 뮤지컬 ‘지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대회

내일까지 참가 신청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안종일)가 백범선생의 생애와 괴례·나라사랑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어머니 독서회 회원 150여명(11개 권역 / 각 권역별 선착순 13명 접수)과 (주)무동, 우리공통신(주)의 임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머니 독서회 회원들은 참가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22일까지 권역별 회장에게 먼저 접수해야 된다.

참가자들은 ‘쉽게읽는 백범일지’(돌베개 페퍼)를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 9월18일까지 기념사업협회로 원고를 발송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하며 백범상, 최우수상 등 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백범김구의 보은의 전라도 길-보성·함평’ 역사기행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문의 062-233-24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태교음악회

내일 남구문예회관

태교음악회가 22일 오후 7시 광주 남구문화예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광주 남구 보건소가 3개월 동안 진행해온 ‘임부·태아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제작중인 양유진(바이올린)씨와 김용식(첼로), 홍철의(피아노)씨가 트리オ를 구성, 생상의 ‘백조’, ‘죽음의 무도’, 피아졸리의 ‘여름’, 사티의 ‘나는 당신

초등생 만화·애니메이션 체험 교실

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체험 교실을 연다. 강의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조선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부 박경철 교수와 권동현 교수가 지도를 맡는다.

애니메이션 창작교실(27일~8월 1일)은 애니메이션의 원리와 기법을 배우고 다양한 스토리의 애니메이션

이션을 직접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마감은 오는 23일까지다.

만화창작교실(8월3일~8일)은 만화 속의 표현 기법 및 발상법, 스토리 구성 등의 교육을 통해 감성과 표현력을 기르고 참가자들이 직접 그린 원고로 만화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신청 마감은 29일, 선착순으로 각각 30명씩 모집하며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www.cct.go.kr. 문의 062-230-01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9 서울대 12명 학생
광주역원가 대표 브랜드**

- ▶ 13년의 역사와 전통
- ▶ 중·고·하까지
- ▶ 국·영·수 단과전문

국민학원

- 중·고등 국어, 독서는을, 드리고
- 중·고등 수학영역
- 중·고등 편구영역
- 고등부 언어영역

국민영재학원 511-0433

경향교복&명문

김재규경찰학원
찰학 신화는
계속된다!

**웹기반 JAVA
개발 전문가 교육생모집**

2009.07.10 ~ 2010.02.09

Start!

전액무료

8월 10일

○ 중앙IT직업전문학교

공무원

2009.07.06 ~ 2009.08.08
합격특별반모집

한국기생인 대상
소방인력

한국재난안전재난예방
재난재해관련 전문가 모집

8월 1일 주류 전문모집
(한국 산림과학 전수회)

국립고시학원

김재규경찰학원

찰학 신화는
계속된다!

○ 중앙IT직업전문학교

**웹기반 JAVA
개발 전문가 교육생모집**

2009.07.10 ~ 2010.02.09

Start!

전액무료

8월 10일

○ 중앙IT직업전문학교